

# 사설

## 귀순자 포교대책 급하다

북한의 학정을 피해 귀순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한 2천여명의 탈북자 가운데 남한 땅을 밟은 사람은 약 600여명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직장과 주거를 마련하여 정착을 유도해왔다. 정부의 가시적 물질적 지원에 발맞추어 불교계는 지친 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새로운 통일시대의 불교의 선봉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지난해 2월 귀순자들의 모임인 남순자장회(南巡者長會)를 결성했다. 그런데 그 남순자장회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한때 42명이나 되던 회원들이 점점 줄어 8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질적 체제와 교육을 받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체제와 생활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사회주의적 배급과 명령에 순응해온 그들에게 남한 사회는 적나라하고 무자비한 경쟁의 무대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들은 이 경쟁에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의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적응에 실패한 그들 중 상당수가 '차라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결과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지원과 관심이 귀순 당시 기자회견으로 천원일물적인 감쪽소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가올 통일시대의 견인차가 아니라 제3국의 수입된 노동자들처럼 중대한 사회문제에 귀결될 수도 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다. 그 다음은 물질적 지원과 관심이다. 우선 안정된 직장이다. 그들의 정착금은 지금의 주거비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80% 이상이 월 수입 10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꾸려가고 있다. 이들이 남한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는 능력과 기능을 가질 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한다.

남순자장회가 출범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당부했다. "고매한 진리, 팔만장경의 교화를 가르치기 이전에 위대한 공감과 동정의 자비부터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증생의 고통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아픔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 고통 자체에 다가가지 않고 삼계(三界) 너머의 열반(涅槃)의 세계를 설교하고 있어서는 불교의 진리가 먹혀들 리 없다."

종단과 사찰은 불법에 대한 포교 이전에 이들의 안정된 생활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물론 일자리 주선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종교도 귀순자들의 물질적 기반을 다지고 안정시키는 일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불교계가 알선한 직업이 안정감과 고정수입을 보장해줄리라는 믿음이 확신될 때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폭될 것이다.

총무원은 귀순자들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열어, 이익금을 국내의 불우이웃과 더불어 귀순동포들을 위해 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남순자장회도 각 사찰이 귀순자 하나씩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 한다.

현재 귀순자 포교전선에 나서고 있는 은혜사 법타스님과 광명선원 초격스님처럼 각 사찰의 주지스님이 귀순 불자를 수양아들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지만 불교계는 귀순 동포들에 대한 포교를 장기적 안목에서 구상해야 한다. 탈북과 귀순은 이제 시작이다. 북한은 식량이 공식적으로 바닥났다고 선포했고 핵실험을 반입시키면서까지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일정한 계기를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남한으로 대량 유입되는 사태가 불어 닥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불교계는 천수천안의 가피력으로 대량의 귀순자들을 수용하고, 안정시키며 포교할 공식적 단체를 설립하고 재정을 확보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종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열린마당

## 조계종 승가대학령

### 학인·강사 수 등 인가조건 교육 질 향상

승가대학 인가와 관련, 12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결의문을 접한 교육원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령 제정의 목적인 '기본교육기관의 체계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승가대학(강원)에 대한 인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승가기본교육을 정착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인수 강사수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을 적정하게 갖추도록 하는 인가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의 개정은 불가피하

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31일 열린 교육원과 종회교육분과위(위원장 종광) 연석회의에서도 학인수 하한선의 하향조정, 상한선 설정, 기초선원 입학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나아가 승가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쟁점부분의 이견을 좁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5년 8월부터 지관 고산스님 등 교육원원과 중앙총회 총무원과 강원 강주스님들을 망라한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도법)에서 1년이 넘

는 동안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승가대학령을 마련하고 4개월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했는데 이제 와서 교구본사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교육원 실무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자칫 이후 중앙총무기관의 총령이 시행단계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전례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교구본사에서 승가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며, 승가교육 체계화를 이룰 전 화위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윤>

### 승가대학령 일지

- 95.8.30. 도법 법성 황적 수진스님 등 17명을 위원으로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를 발족.
- 96.3.6. 승가대학령 입법예고.
- 96.7.2. 승가대학령 공포
- 96.12.3. 교육원, 승가대학령에 따라 이남까지 통도사 법어사 등 7개 승가대학 인가, 삼선승가대 조건부 인가. 송광사 법주사 쌍계사승가대학은 인가신청서 접수.
- 97.2.3. 총무원장 교육원장, 종단비인가 승가대학 학인 학적변동 권고 공동담화문 발표.
- 97.1.24.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전통강원 폐강조치에 따른 전승원 대책위' 구성.
- 97.1.30. 전국교직자연협회(회장 수진), △학인정원 20명 이상, 2~3년 유예기간 두고 전통강원 우선 인가 △강원령 전면 재검토 △교육법·총림법·강원령의 상치부분 개정을 교육원에 요구.
- 97.1.31. 중앙총회 교육분과위·교육원, 승가대학 인가와 관련 연석회의. △학인수 하한선을 30~40명으로 조정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며 △승가대학령과 관련해 승가교육 당사자의 토론회 개최 검토키로 함.
- 97.2.2. 전승원, △전통강원 우선 인가 △전통강원 학인수 자율화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 수립 △전통강원 역할 강화 △승가대학령 전면 재검토 △담화문 발표에 대한 사과 등 6개항을 결의.
- 97.2.2. 승가대학 당사자, △승가대학령 전면 재검토 △기본교육 미이수자 대책 수립 △학인 인원 제한없이 총정원 20~70명으로 조정 △교수인원 2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을 교육원에 요구.

### 전국 승가대학 강사·학인 현황

학교명	강사수	학인수	학교명	강사수	학인수
통도사*	3	35	운문사*	7	226
해인사	5	120	정암사*	3	90
쌍계사*	2	24	봉녕사*	3	126
송광사*	5	56	삼선승가대	3	34
백암사*	2	26	직지사	5	9
법어사*	2	24	불국사*	2	7
법주사*	3	12	화엄사*	3	12
동학사*	5	127			

★표는 인가, ●표는 인가신청

### 학인수에 비중...사자상승 전통 불인정

#### 도일(법주사 승가대학 강주)

이번에 발표된 '강령'이 종단의 3대 사업의 하나인 도제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교수진을 확보하고 그 안정을 도모하여 교육의 내실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세속적인 교육방법과 유사하게 되어 종지를 구현하는 도제 양성과 거리가 멀어질까 염려된다. 인가의 기준을 지금까지 교육받은 역사를 무시하고 학인수에 비중을 둔다면 재고해 볼 여지가 있고, 수행하는 방법도 부처님의 말씀에는 대가설법이라 하였는데 단원화를 통한 학인수

의외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미 종단은 모든 교육을 통일화하여 교육행정을 체계화 하겠다고 본다. 그 한 예는 기초교육기관인 행자교육을 이수해야 예비승려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수하고 기본 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교육원의 대책은 전혀 없다. 강원과 기초선원 등국대학(불교대학) 중앙승가대에 진학하여 4년간 수학하면 정식 스님이 된다. 따라서 스님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교육환경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조성되어야 한다. 시행에 있어서도 착오가 있다고 보인다. 1년내(97년 7월까지) 조건을 갖추어 인가를 득하

여야 한다고 강원령에서 밝혔으면서 6개월여를 소급하여 입학 제한과 학인 진학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른 여러 조건을 충실히 갖추고 학인 총원만 준비하고 있는 강원령의 경우 그 가능성을 없애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또한 강원령의 상한선 부분은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학인수가 많다고 해서 과연 교육도 충실하단 말인가. 사자상승의 교육은 교육이 아닐까. "학생은 있어도 제자가 없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그런식의 교육이 된다면 본래 도제양성을 하려는 근본취지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 현대만평

경로당 대신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 목어

### "기대보다는 협력을"

일본의 유명한 기업 마쓰시다(松下) 전기의 마쓰시다씨가 어느 종교본부에 가서 큰 충격을 보았다. '우리 종업원은 월급을 받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 어떻게 무보수로 일을 할까' 마쓰시다씨는 스스로 답을 찾았다. "원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돈을 벌고 회사를 더 키울 생각만 했는데 이제부터 사회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회사의 사명으로 삼자."

직원들도 사장의 결정에 찬성했다. 협력 단결하며 일에 보람을 느꼈다. 세계적인 마쓰시다와 내소날전기는 그 협력의 결실이다. 정숙년 설과 정월 대보름에 우리는 기대보다 협력을 최대화하는 기도입재를 하자. 곳곳에 화기(和氣)가 감돌길 발원하면서.

##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의 불교 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사집과
  - 사교과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경전강독
  - 교양역사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6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 살아 있는 선(禪)

오소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소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 42장경

뜻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통찰,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실의 해면에서 모은 조약돌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물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건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소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옥·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성야출판

TEL : 778-6826-7 FAX : 778-6828